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6. 15.(금) / 총 3매(본문2,참고1)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자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김진후, 주무관 이동우 • ☎ (044) 201-3848, 3849
보 도 일 시		2018년 6월 1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17.(일) 16:00 이후 보도 가능	

자율주행차 직접 타보니… ‘알아서 멈추고 피해가고 척척’ 사전예약제로 영동대로서 자율주행차 시승…자율주행 기술 체험

- 서울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를 누구나 직접 타볼 수 있는 “자율주행차 국민체감행사”가 열렸다.
 -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경찰청(청장 이철성), 서울시(시장 박원순) 공동 주최로 6월 17일(일)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영동대로에서 진행됐다.
- 국토교통부는 미국·유럽 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제도 개선, 관련 시설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.
 - 민간의 기술개발도 한창 진행 중이며, 현재 46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를 시험운행하고 있다.
 -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신기술로, 성공적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·수용성 제고가 중요하나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.
- 이에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6월 7일 서울 코엑스(COEX)에서 개최된 ‘2018 국토교통기술대전’에서 자율주행차 8대를 전시한데 이어, 자율주행차 7대를 실제로 시승할 수 있는 국민체감행사를 개최했다.

*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자동차, 딥러닝(Deep Learning) 인공지능을 개발 중인 한국과학기술원, 르노와 국제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한양대학교, 5G 자율주행을 개발 중인 KT 등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주요기업·대학 참여

- 이번 체험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경기 고교사거리까지 일부 차로를 통제*하고 진행되었으며, 도로 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오전을 활용했다.

* 왕복 14개 차로 중 상행 3개 차로, 하행 2개 차로 통제

- 사전예약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대처하는 기술을 체험했다.

-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, 옆 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하여 안전하게 감속하는 기술뿐만 아니라,
-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감지하여 정지하고, 전방의 고장난 트럭을 안전하게 피해가는 기술도 선보였다.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를 시승한 후 “자율주행차는 생활을 편리하게 할뿐만 아니라,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”이라 말하고,

- “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자율주행차를 직접 경험하고,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우리 삶의 변화를 미리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”이라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기술과 김진후 사무관(☎ 044-201-384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행사 구간 및 시승 내용

